

## 투데이

■ 전국 곳곳 '불량 범씨' 피해 신고…파문 일파만파

## "종자원 미온적 조치, 농가피해 키웠다"

전남 피해 큰 운광벼, 경북선 석달전 공급 중단

종자원 "일조량 부족·추가 소독약재 투입 탓"

정부가 보급한 '불량 범씨'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종자원은 주요 피해 원인을 일조량 부족과 추가 소독약재 투입 등으로 추정하고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TF팀)를 구성해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나섰다.

또 전남 농가에서 호흡·운광벼 등 의 발아 지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의 경우 운광벼 품종에 대한 발아율 저하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월 농가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종자원의 미온적인 조치로 농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피해가 발생한 호흡벼 이외에도 강원도 오대벼, 경남 흙풀벼(김해·고성·창원), 충남 주남벼(서산), 충북 오대벼(제천·단양)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피해 원인을 지난해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올 놓자리 시기 저온현상을 꼽고 있으며, 특히 활력이 저하된 품종에 대한 소득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소득 약제(아리스위퍼·사파이어·스미친은 등)를 투입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종자원은 전남 운광벼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짹 틔우기를 하지 않는 행정적인 농법을 꼽고 있어 피해 보상을 놓고 농민들과의 공방도 예상된다.

종자원은 주요 원인 분석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업진흥청과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원인 분석에 나섰으며, 피해농가에 대한 실비 지원을 위해 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아울러 종자원 전남지원이 광주·전남 농가에 10t를 공급한 운광벼의 경우 이미 종자원 경북지원에서 검사과정에서 발아율 저하 여부를 확인한



정부가 보급한 '불량 범씨'를 피증했던 농민들이 대체 종자 확보난에 이어 일손 구하기도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 남구 화장동 한 농가에 의경 60명을 투입, 불량 범씨가 심어진 모판을 정리하는 등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원은 올해 농가 보급을 위해 305t의 운광벼를 수매했다가 농가 공급 전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설을 파악하고 농가 공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품종의 정부 보급종자인데도, 지난해 이상 기후 등을 감안하면 국립종자원이 좀더 일찍 지역별 현황을 조사하고

조치를 했을 경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지난 주 농식품부 정승 제2차관을 만나 "피해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상도비는 물론 인건비까지 확실하게 실비보상하고,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

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피해의 70%가

농업이 주산업인 전남에 집중됨에 따라 이번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수확기에 추가 피해 여부를 따져 보

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 남도 명품 섬 일주 관광유람선 뜯다

道, 24일까지 민자 공모

서남해안 유명 섬을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관광유람선이 뜬다.

전남도는 '남도 명품 섬 일주 관광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유람선 운행은 기존 시·군 경

계를 오가는 지역 내 운항 방식 대신, 전국 최초로 버스 투어하듯 남도 유명 섬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한 특징이다.

공모 사업자가 선박과 인허가를 얻어야 하고 선박이 크루즈일 경우 2000t 이상, 유람선은 200t 이상이어야 하며 운항에 따른 장비,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지기자 dok2000@

말을 바꿔 악속을 어겼고 전북과 경남이 참여하는 지역이전협의회 논의조차 생략됐다"면서 "악속·과기와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결정은 무효인 만큼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는 한편 이날 정부안을 최종 심의해 의결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실력 저지할 계획이다.

## 광주·전남 신재생 육성사업 '청신호'

### 광주생산기술硏-태양광, 전남테크노파크-풍력

### 지경부 설비 실증실험 지원 '테스트 베드' 선정

광주·전남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실증실험을 진행할 테스트베드(test-bed)로 나란히 선정돼 지역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식경제부는 15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 베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테스트 베드는 중소·중견 기업이 개발한 태양광·풍력 등의 부품과 신기술 제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전 성능과 시험분석 등을 하는 것으로 광주의 경우 광주생산기술연

구원이 태양광 분야 테스트베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전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해 목포대 등이 풍력 시스템 분야 테스트 베드 사업자로 참가하게 된다.

풍력산업 테스트베드는 국비 등

162억원을 투입해 영광 백수읍 하사리 일대 500만 m<sup>2</sup>에 구축되며 올 6월

착공, 오는 2014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 풍력 발전기 18MW와 소형 풍력발전기 2MW 등 20MW 규모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뒤 2014년부터 2단계로 20MW 규

모를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100㎿ 규모의 풍력 시스템 시험·실증단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풍력산업 육성 선언 이후 기업들의 풍력 산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제품 검증 및 사업화를 위한 인증시스템이 없었던 만큼 풍력 테스트베드가 국내 풍력발전 기술력을 향상시키면서 전남의 풍력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풍력 테스트베드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영광과 대구산업단지 등에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구조물 설치업체, 유지보수업체 등이 가동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수박람회 준비 '미흡'

### 대회 1년 앞두고 여론조사

1년 앞으로 다가온 2012여수세계 박람회에 대한 준비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박람회 개막 1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박람회와 여수시장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박람회 준비 정도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6.6%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도 24.3%에 달해 '준비상태'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준비가 안되고 있는 분야로는 '도로교통(50.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숙박관광(20.6%)', '환경(17.5%)' 등의 순이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으로는 절반 넘는 58.0%가 '국제해양관광단지'로 답했고, '해양수산연구단지(18.4%)', '기후변화체험단지(9.5%)' 등 의 순이었다.

/동부지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여수산단내 430억 규모 토큰 생산공장 건립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일본 모리 니폰소다 상무, 오카베 미쓰비시상사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3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투자협약이 결실을 보게 되면 수입 대체 및 수출에 따른 무역 수지 개선 효과와 함께 물류비 절감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기자 dok2000@

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한다. 이번 설비가 완비되면 2012년 말부터 연간 5000t(국제수요 2만t)를 생산해 내수는 물론 해외 수출도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일본 모리 니폰소다 상무, 오카베 미쓰비시상사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3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제56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0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조진성 교수의 '다빈치 로봇 갑상선 절제술'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내분비외과 조진성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오는 23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 주 제 : '내시경 및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술'

■ 강 사 : 조진성 내분비외과 교수



-대한외과학회 정회원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평생 회원  
-한국 유방암학회 평생 회원  
-유방암·갑상선암·내시경 갑상선종양 절제술 양성유망질환 수술 전문치료

■ 일 시 : 5월 20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광州日報社·전남대병원

**전남·부 축강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도시락·식판급식·성당 교회결혼식뷔페·아외결혼식뷔페  
칠순/팔순잔치·체육대회·아유회  
증진회·기업체 각종행사

**예약 파티외식산업**

본사 ☎ (062)226-0086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http://www.party-food.co.kr)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73-38 (계 4,787m<sup>2</sup>)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m<sup>2</sup>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http://www.swc.co.kr)

**'11 재광 진도군 항우회 정기총회**

○ 일 시  
2011년 5월 28일 15:30 - 20:00

○ 장 소  
방법초등학교 체육관

○ 대 상  
400명 (내빈, 항우회원, 초청 가수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진도군 흥보비디오 상영  
진도군립 예술단 공연
- 의식행사 - 제1부 행사 : 개회식
- 식후행사
  - 제2부 행사 : 만찬(현지장소비회)
  - 공연  
(진도군립 예술공연단, 연예인 초청 : 박진도)
  - 품바탕
  - 음·면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 행운권 추첨
  - 폐회

○ 추진위원

- 재광 진도군 항우회장 한기민 010-9458-1896  
수석 부회장 한찬권 010-7156-4363  
상임 부회장 박성호 010-3601-0989  
상임 부회장 김정운 010-9862-4708
- 진도읍 항우회장 김복남 011-9603-9270  
• 고군면 항우회장 한진우 011-9667-8041  
• 군내 면 항우회장 박상진 017-605-5549  
• 의신면 항우회장 박상호 010-2409-1548  
• 임회면 항우회장 곽봉일 011-2616-8846  
• 지산면 항우회장 최정규 010-3468-7741  
• 조도면 항우회장 김채호 011-609-1779

2011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문화경영 및 관광전공 0명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0명  
계 5명

■ 행정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시	최종합격자 발표
석사학위 과정	2011. 5. 16 ~ 5. 27	1차 : 2011. 6. 3 2차 : 2011. 6. 10	2011. 7. 6

■ 문의

- 행정실 : 062) 530-4061~4063
- 자세한 내용은 문화전문대학원 홈페이지([culture.chonnam.ac.kr](http://culture.chonnam.ac.kr)) 참조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수익금 1% ~ 10% 정기적금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연 6%정도